

<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말씀>

알파와 오메가,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

본 문 요한계시록 8장 13절, 20장 4-1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
2016년 마지막 수요일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오늘 말씀은 ‘2016년 마지막 설교 말씀’ 입니다.

오늘 ‘2016년 마지막 설교 말씀’ 을 해 주고,
<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때>는 간단히 인사하고,
생방송으로 전체 시상을 하고,
생방송을 마치면 각 교회별로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.

◆ 2016년 1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를 통해

- 매일 새벽마다 잠언으로 말씀해 주셨고,
-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 100여 편을 해 주셨고,
- 기타 집회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해 주시면서
약 450번 이상 ‘단상 설교’ 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

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할 사람이 없도록
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와 함께
<시대에 행할 것들>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.

- ◆ 또 ‘이 해가 가기 전에 깨끗이 청산할 것들을 청산’ 하도록
미리 ‘회개에 대한 말씀’을 해 주시면서,
모두 기도하도록 ‘진리와 성령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.
- ◆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, 또 죄를 깨끗이 회개하지 않고서
그냥 2016년을 넘기는 자들이 있습니다.
- ◆ 해마다 ‘새해를 맞기 전에 꼭! 해야 될 일’이 있습니다.
‘연말에 꼭! 해야 될 일’이 있습니다.

바로 ‘소각할 것을 소각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’입니다.
곧 ‘회개’입니다.

- ◆ <더러운 옷>을 빨지 않고
그 옷을 그대로 입고 새해를 맞으면 꺼림칙합니다.

<몸의 더러운 때>를 깨끗이 씻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 끔찍합니다.

<할 일>을 다 못 하고, 새해를 맞으면 꺼림칙합니다.

이와 같이 <올해 지은 죄>를
완전히 회개하고 소각하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,
마음에 꺼리고 끔찍해서 정말 안 됩니다.

- ◆ <2016년의 죄>를 회개하지 못하여
새해까지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.

정말 깨끗이 회개하고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.

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떠나가는 2016년에
<꺼리는 것들>과 <각종 죄>를 다 회개하여 버리고
새해를 맞아야 됩니다.

- ◆ <새해라는 깨끗한 옷>을
<지난해라는 묵은 옷>에 끼입듯 하면 절대 안 됩니다.

올해가 가기 전에 <죄>를 속 시원히 고하고 회개하여
다 소각하고 깨끗이 끝내야 됩니다.

안 하면, 결국 <죄>가 생각에서 희미해져 잊게 됩니다.
그러면, 계속 ‘죄의 짐’ 을 지고 다니게 됩니다.

<죄의 짐>을 지어 봤자 무거워서 떨지 못하고,
<죄>로 인해서 될 일도 안 됩니다.

고로 <자기가 지은 죄>는
올해가 가기 전에 확실하게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,
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<새해>를 맞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은 계시자들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.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섭리사 안에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를
생활화하며 산 자들이 많다.

술, 담배, 이성, 음란물, 미디어에 빠져 살고,
말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,
하늘 앞에 약속해 놓고 행치 않은 것들이다.

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주께 고하여 청산해야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왜 ‘주’께 죄를 고하겠습니까?

하나님은 항상 ‘보낸 자’를 통해 죄 회개를 받고 용서하십니다.

고로 ‘자기 혼자’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는 것은
질서를 벗어나는 일이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.

고로 ‘용서’가 힘듭니다.

주께 고하면, 주가 ‘회개 기도한 조건’이 있으니
그 ‘조건’과 함께 ‘회개한 자들의 회개’를
하나님께 고하고 올립니다.

그러면 하나님께서 <보낸 자의 말과 마음>,
<회개한 자들의 말과 마음>을 보고 판단하여 용서해 주십니다.

그리고 ‘근신 기간’을 주어
그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도 해 주십니다.

◆ 세상에도 ‘재판의 질서와 절차’가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<죄>는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.

다 ‘질서’가 있고 ‘절차’가 있습니다.

◆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된 자일수록 <죄>를 느슨히 경히 여기고
‘그냥 회개하면 되지.’ 하고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.

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섭리사에 온 지 오래됐으면 더 노련하여

죄를 더 노련하게 깨닫고 죄를 무섭게 보고 처리해야 된다.”

- ◆ 특히 하나님께서 연말에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
“<죄>에 대해 완전해라. 깨끗해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하나님께서 <회개의 기회, 용서의 기회>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.
그 기회의 때에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, 복 있는 자입니다.

- ◆ 지금 심각한 죄를 지으면, ‘복직할 시간’ 이 없습니다.
특히 ‘이성의 죄’ 입니다.

마치 차가 떠날 때 물건을 사러 가는 자와 같아서
물건을 사러 가야 하니 차를 타고 갈 시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.

- ◆ <죄>를 아예 안 지으려면,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<죄>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또 죄를 짓고 살고,
<죄>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삽니다.

- ◆ <진리와 성령의 충만함> 속에서 ‘땅의 성자와 성령’ 과 일체 되어
성령께서 성령의 상징체를 통해 주시는 ‘성령의 불’ 을 받고,
그 감동과 흥분 속에 ‘주를 머리’ 로 삼고 살면,
절대 ‘죄’ 를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죄>로 인해 2016년도에 못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.
개인의 것도, 교회의 것도, 섭리사의 것도 그러합니다.
<죄>를 회개하여 청산해야 ‘받을 것들’ 을 받게 됩니다.
- ◆ <무지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화목하지 못한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계으른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기도하지 않은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주를 진정 사랑하지 않은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빨리 행하지 못한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주의 가치를 모르고 산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생명의 가치,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
삼위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감사하지 못한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사탄이 틈타게 한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사탄을 멸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- ◆ <악평자의 말을 믿은 것>도 ‘죄’ 입니다.

- ◆ <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것>도 ‘죄’입니다.
- ◆ <삼위와 주와 교통하지 못한 것>도 ‘죄’입니다.
- ◆ <세운 지도자들이 밑의 사람들이 건의해도
그냥 가볍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은 것>도 ‘죄’입니다.
- ◆ <서로 의논하지 않고 행한 것>도 ‘죄’입니다.
- ◆ <110일 기도 기간 때 열심히 기도 안 한 것>도 ‘죄’입니다.

이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몰랐을 것입니다.

주는 머리라 간구하였고
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
기도하라 하여 전체가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.
- ◆ <주를 머리로 삼지 않고 행한 모든 것>이 ‘죄’입니다.
- ◆ <개인 · 가정 · 교회 · 민족 · 세계
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
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>이 다 ‘죄’입니다.
- ◆ 하나님은 <회개하지 않은 자들>은 ‘심판’ 하시고
<회개한 자들>은 ‘용서’ 하시며,
각자 행위대로 받게 하셨습니다.

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, 다 행하십니다.

각 개인도 연말에는 정산하고 청산하고 해를 넘기듯,
하나님도 꼭 정산하고 청산하고 해를 넘기십니다.

- ◆ “특히 ‘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이단’ 과
‘가인적 종교들’ 은
〈소멸하는 심판〉을 이미 했고, 앞으로도 계속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새해를 맞고도, 섭리인 모두 열렬히 기도하며
하나님 앞에 ‘악’ 을 놓고 고해야 됩니다.

이때 멸할 때 악을 아예 멸해 달라고,
진~정 간~절히 기도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애태우고 심정 태우며
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
손해를 당해 가면서도 주 안에서 굳건하여 열심히 뛰고,
아파 가면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섭리와 주를 위해 땀 자들
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

일일이 다 상을 줄 수 없습니다.

그동안 주기도 했고, 영적으로도 졌습니다.

천국 황금성에서 주기도 했습니다.

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축복해 줄 것입니다.

- ◆ 단상에 서서 외치고 수고한 교역자들,
강사들, 관리자들, 전도자들,
전도하러 다녔으나 결실하지 못한 자들까지도

하나님은 다 상을 주셨습니다.

수고와 애씀을 보고 다 주셨습니다.

하나님은 빚지지 않고 다 갚아 주십니다.

- ◆ 항상 주를 위해, 섭리사 모든 생명들을 위해
진리와 성령의 불을 부어 주는 조은 목사,
올해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파서 쓰러져 가면서도
기어이 해서 승리했습니다! 정말 잘했습니다.
- ◆ 월명동 자연성전 공사를 사고 없이 끝까지 지휘한 범석 목사,
끝까지 함께한 자들, 섭리인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.
- ◆ 또 섭리사 각 교회 성전들을 구하느라
뛰고 달린 자들 수고 많았습니다.

올해 1월 1일에 섭리사 전체에 주신 꿈대로
〈2016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〉을 뺏기지 않고 다 얻었습니다.

선생은 〈하나님이 섭리사에 주시는 것들〉을 뺏기지 않도록
1년 365일 매일 ‘조건’을 세우며 기도했습니다.

결국 ‘작은 것’도, ‘큰 것’도
다 ‘조건’을 세워서 뺏기지 않고 얻었습니다.

그리함으로 하늘 섭리사에 거뒀습니다.

- ◆ 무엇을 거뒀었는지, 전체는 다 모릅니다.
〈2016년 역사에 기록한 것〉을 보면 압니다.
- 처음에는 비밀이었다가, 점진적으로 모두 알게 됩니다.

개인의 것은 개인별로 알게 되고,
교회의 것은 교회별로 알게 되고,
섭리사의 것은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.

- ◆ <새 역사의 생명들>과 <각 교회의 성전들>이
‘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’ 이고
‘하나님이 주신 예술 작품들’ 입니다.

- ◆ 하나님이 갖가지로 실천하실 때 어서 부지런히 행하고 준비하여
<주>를 맞고 <주>와 같이 해야 됩니다.

<하나님이 보낸 자, 그 육신을 맞는 것>이
<그를 쓰고 나타나시는 삼위일체를 맞는 것>이니,
어서 부지런히 실천하고 준비하고 맞아야 됩니다.

- ◆ 2017년은 ‘**실천의 해**’ 입니다.
실천해야 해결된다는 말입니다.

또 2017년은 ‘**닭띠의 해**’ 입니다.
<닭>은 ‘**때를 알리는 상징**’ 입니다.

고로 부지런히 실천하고 준비하여 ‘그 때’ 를 맞아야 됩니다.

- ◆ 인생 문제, 신앙 문제, 휴거 문제 모두 <실천>이 ‘답’ 입니다.

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는

하나님이 그때마다 ‘보낸 자’ 를 통해 전해 주실 것이고,
성령께서 그때마다 ‘각 개인’ 에게 감동 주며 전해 주실 것입니다.

◆ 우리가 실천하려면, ‘성령의 역사’가 절실합니다.

<땅의 성자>가 계속 ‘말씀’ 해 주고,
<성령>께서 성령의 상징체를 통해 ‘성령의 역사’를 실행하셔야
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.

그러니 내년에 더욱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고,
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죄는 회개하면 용서합니다.

그러나 죄를 경히 여기고 진정 간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.
고로 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.

진정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.

◆ 주는 간절히 기도하는데,
계속 졸고 자면서 진정 간구하지 않고
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.

이들은 주가 행하는 역사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.

진정 주와 함께 간~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.

◆ 꿈 영계에서도 보면
생시에 진정 열심히 사는 자는
선생을 즉시 알아보고 기뻐하며 따릅니다.

그렇지 않은 자들은 제 불 일만 보고
선생이 지나가도 쳐다만 보고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.

섭리사의 현실입니다.

- ◆ <섭리역사>는 ‘성경에 예언되고 약속한 모든 것’을 실제로 펴 나가며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.

그런데 ‘기성인들과 같은 사고’를 가지고 살면,
<새 역사>를 만났어도 <새 역사>를 못 꿰니다.

기성같이 보통으로 해서는 ‘하나님의 목적’을 이루지 못합니다.
진~정 극~으로 간~절히 해야 ‘목적’을 이룹니다.

- ◆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식어서 보통으로 하는 자는
‘식은 물’ 같고, ‘꺼진 불’ 같은 자입니다.

‘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’입니다. ‘미지근한 신앙’입니다.

할 때, 각자 자기 때에 ‘화끈하게’ 해야 됩니다!

- ◆ 9월에 섭리인 전체 <110일 기도>를 하자고 했을 때,
민족의 앞날이 이리 될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.

하나님은 **내용**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**하**라고만 하십니다.

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보면, 왜 하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.

- ◆ 섭리사가 세계적으로 기도한 지 **60일**이 넘으니 모두 드러났습니다.
민족의 일이 드러나니, 충격이었습니다.

이에 한국의 백성들이

<대통령 하야, 대통령 탄핵> 등 각종 목적을 놓고
매주 연속해서 <촛불집회>를 하면서
거리를 행진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.

이를 보고 온 국민 수천만 명이
집에서 TV를 보면서 <마음의 촛불>을 켜 들고
부정부패, 각종 비리가 없어지도록 소리를 쳤습니다.

- ◆ 또 연말에 한국은 AI(조류 인플루엔자)로
닭과 오리 등 조류 1900만 마리가 매몰 처리되었습니다.

지금도 AI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.
사상 최악의 AI입니다.

또한 세계적으로 처처에 각종 환난과 재난들이 일어났습니다.
이것들이 성경에 해당되는 환난입니다.

- ◆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,
“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
땅에 사는 자들에게 ‘화, 화, 화’가 있으리니.” 했습니다.

여기서 <독수리>는 ‘하나님이 보낸 자’를 말합니다.

항상 ‘역사의 주인 = 보낸 자’를 중심으로
성경에 말씀하신 각종 일들이 일어납니다.

- ◆ 화, 화, 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,
여기서 ‘세 가지의 화’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일까요?

<1차 화>는 1999년도까지이며,

<2차 화>는 2012년도까지이며,

<3차 화>는 섭리와 민족과 세계에 일어나는 마지막 화의 때입니다.

이때는 섭리역사 ‘한 때 두 때 반 때에 해당되는 때’ 입니다.

모두 이 때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.

- ◆ 섭리역사는 <첫 번째 화 기간>에 ‘1차 부활기’를 마쳤고,
<두 번째 화 기간>에 ‘2차 부활기’를 마쳤고,
<마지막 화 기간>에 ‘휴거 역사’를 이룹니다.

그 기간마다 주를 머리로 삼고 철저히 기도하며

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신앙을 지키고 산 자들만 이겼습니다.

<마지막 화 기간, 휴거 역사의 때>도

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철저히 기도하고

휴거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킨 자들만 이깁니다.

- ◆ 사탄은 ‘사람들’을 통해 각종으로 역사합니다.
또 ‘각자 마음과 생각’을 치며 각종으로 역사합니다.

고로 오직 ‘주를 머리’로 삼고,

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여 ‘자기 마음과 생각’을 굳건히 지키며,

매일 주와 같이 실천하며 ‘살아 있는 신앙’을 해야 됩니다.

- ◆ <3차 화 기간 때>

하나님은 ‘악’을 소각하면서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.

고로 모두 주와 함께 ‘열렬히 기도’해야 됩니다!

새해까지 ‘기도의 불’이 붙어서 열심히 간절히 해야 됩니다!

그래야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삼위일체가 행하십니다!

- ◆ <2017년 실천의 해>는 ‘귀한 해’입니다.

실천하려면 ‘힘과 능력’ 이 있어야 되고 ‘영적’ 이어야 됩니다.

고로 주를 머리로 삼고 삼위와 주와 일체 돼야 하며,
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야 되며,
열렬히 간절히 극히 기도해야 됩니다.

<마무리>

- ◆ 2016년 한 해 동안 열렬하게 역사해 주신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진정 감사하고 사랑한다고
모두 다 같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.

<자막> “하나님, 성령님, 성자 주님 진~정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”

- ◆ 올해도 갇힌 선생을 돌아보면서 진정 기도해 주고,
편지해 주고, 열심히 뛰어 준 자들 감사하고 고마워요.

또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
나를 위로해 준 해외 여러분,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